

## 노인 집단에서 배우자의 사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김 승 연\*      고 선 규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 104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1.31 (SD=5.30)세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별 스트레스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스트레스 대처 척도, 노인 우울 척도,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별 스트레스 척도는 '상실감',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역할수행 문제'의 하위척도로, 스트레스 대처 척도는 '신앙에 의지', '문제의 재정립', '감정 표출', '수동적 회피'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상관과 회귀를 통해 통계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사별 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상관을, 사회적 지지, 대처행동과 우울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회귀분석 결과, 생활 스트레스,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의 변량을 37.4% 설명하였으며, 사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R^2$ 이 2.7% 증가하여 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입증되었다. 대처행동은 문제의 재정립 등의 문제중심 대처와 사별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결과,  $R^2$ 이 9.9%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 재정립 대처는 우울감을 상승시켜 사별자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가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사별 노인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요어 :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 행동, 우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승연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40 / Tel : 031-910-7265 / E-mail : zenith2010@hanmail.net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년 인구를 급속하게 증가시켜 놓고 있다. 팽창하는 노년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유엔(UN)의 '세계 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노령화 지수를 산정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현재 9.1%에서 2010년에는 10.7%,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한다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 2005).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노인 부양, 보건의료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회적인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노인들은 은퇴로 인한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경제력 감소, 노화로 인한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의 퇴화를 경험한다. 노화는 신체의 구조와 기능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이나 감각과 지각의 능력, 성격의 특성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윤진, 1997). 그와 더불어 가족 혹은 친구들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등을 경험하며, 가족관계와 세대관계의 재구성으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김규수, 2003). 더구나 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전통적인 가족 체계와 윤리관의 붕괴 등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로 어느 나라의 노인들보다도 심각한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적응하기 힘든 변화에 내몰린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노인들은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걱정과 불안, 초조, 긴장 등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신경쇠약과 우울, 의욕상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 정서상태의 불안정과 비판 및 증오감을 갖게 되며, 극단의 경우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백경숙, 권용신, 2005). 특히, 노화와 우울은 서로 연관성이 많아, 노인들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심각한 병중의 하나

이다. 미국 정신 의학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IV(APA, 1994)에 정의된 주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의하면, 노인 우울증의 유병률은 1~2% 정도라고 하지만, Gottfires (2001)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15%가 우울 증세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우울 빈도는 진단도구에 따라 2%~60%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강희숙, 김근조, 2000). 기백석(1999)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상을 보이는 노인들의 비율은 전체 노인의 15%에 이른다고 보고하였고, 서국희(199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가능우울증(possible depression)의 유병률은 25.3%, 확정적 우울증(definite depression)의 유병률은 10.8%로 나타나 있다.

노인에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일 생활 사건은 사별이다(Strobe, Storbe & Hansson, 1988). 배우자의 상실은 동반자의 상실을 의미하며,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동반자 관계는 사랑과 사회적 지지, 안락함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우울한 노인 중에는 최근에 배우자나 자식과 사별을 경험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노인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Miller & Reynolds, 2003).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높은 정서적 지지를 보이며, 낮은 우울 증상을 보인다(Mirowsky & Ross, 1992; Ross, 1995). 반면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은 우울증 증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Mendes de Leon, Kasl, & Jacobs, 1994; Musil, Haug & Warner, 1998; Ross, 1995). Ziok(1991)는 사별자 중 약 50%가 배우자 사별 후 1년 동안, 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on)의 진단기준에 속하는 여러 증상들을 호소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 사별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몇몇 연구들에서 그의 어려움이나 대처자원을 탐색해 보려는 연구를 해왔다(강인, 최혜경, 1998; 전길양, 김정옥, 2000; 최혜경, 1996; 최희정, 1997).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사별이 단지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극심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주로 사별로 인해 발생하게 된 이차적인 스트레스(secondary stressor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사별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의 원인을 개인의 내적 특성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안의 다양한 변인(외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강인, 최혜경(1998)은 60세 이하의 배우자 사별 여성들의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개인 내적 요인들의 중재적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자아복합성과 대처행동을 들었다. 연구 결과, 사별 여성들의 부정적인 자아복합성은 배우자 상실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과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상실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희정(1997)은 성년 및 중년기 여성의 배우자와의 사별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환경변인 즉, 외적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배우자 상실감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동시에 다룬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전길양과 김정옥(2000)은 배우자 사별 노인의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각각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많고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았으며, 배우자 사별 노인의 건강상태, 교육수준, 연령이

우울과 관련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최혜경(1996)은 중·노년기 여성의 배우자 사망에 대한 적응에서 자기 복합성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적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자기 복합성과 사회적 지지는 사별 여성이 처해있는 환경에 따라 완충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결혼생활을 하는 성인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일이며,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인 삶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미 특정 개인이나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사별 노인의 적응에 대해 사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배우자 사별에 관한 연구 또한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태이며, 그나마 대부분의 연구들이 60세 이전의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배우자 사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탐색은 간과되어온 형편에 있다(전길양, 2002). 특히, 노인들의 사별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부적응을 조절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노년기 배우자 사별로 인한 어려움을 탐색하고 사별 후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중재적 역할을 밝히는 연구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효과가 여러 연구(Cohen & Wills, 1985; Wheaton, 1985)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배우자 사별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배우자 사별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

으로 선별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이 노인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거의 정설화되고 있지만, 배우자 사별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의 영향을 다룬 연구 역시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배우자 사망 이후의 노인의 우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 사별자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지지를 조절 변인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에 대처행동과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사별한 60세 이상의 남녀노인들이며, 사별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대상자들은 정신 질환이나 기질적 뇌 장애 증후가 없으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총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별 기간이 7년 이상의 노인 28명, 불성실하게 응답한 노인 36명의 대상자를 제외한 총 10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 평가도구

####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척도

노인의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희정(1997) 연구에서 수집된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유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사별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들은 ‘상실감’,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역할 수행의 문제’ 등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평가하며, 각 하위척도의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5점 척도로 평균을 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8이었다.

####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Abbey, Abramis와 Caplan(1985)이 고안한 사회적 지지와 갈등에 관한 척도를 전지아(1990)가 변안한 것을 노인 연구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지지 6문항, 사회적 갈등 5문항으로 구성되며,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평가하며, 각 하위척도의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5점 척도로 평균을 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6문항은 사회적 지지를 감정(affect), 긍정(affirmation), 원조(aid)의 세 요소로 구분하여 측정한다(Kan & Antonucci, 1980). 감정은 존중이나 사랑을 의미하며, 긍정은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의 적절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정서적 지지를 평가한다. 원조는 돈을 빌려주거나, 실제적으로 일의 수행을 도와주는 직접적인 도움을 의미하며, 기능적 지지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 스트레스 대처 척도

노인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Pearlin과 Schooler(1978), Lazarus와 Folkman

(1984) 등의 연구를 기초로 Stewart와 Kenneth (1988)가 제작한 Individual Coping Style의 20개 대처항목 척도에, 김명자(1991)의 대처양식 척도 중에서 '신앙에의 의지' 4개 문항을 추가하여 이지영(2002)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앙에의 의지', '문제의 재정립', '감정표출', '수동적 회피' 등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평가하며, 각 하위척도의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5점 척도로 평균을 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2였다.

#### 노인의 우울 척도

노인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heikh와 Yesavage(1986)이 개발한 Geriatric Depression Scale 단축형을 기백석(1996)이 번역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 도구(GDSSF-K)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의 다른 우울 척도와 비교해 노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구성되어 노인에게 실시가 용이하고, 짧은 시간 안에 실시가 가능한 검사라는 장점이 있다. 노인 스스로가 각 질문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 척도로서,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0점에서 15점의 점수분포를 보인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상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 점수 분포 상에서 5점 이하를 정상, 6점에서 9점까지는 중등도의 우울 증상, 10점 이상을 우울 증으로 구분하였다(기백석, 1996).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 생활 스트레스 척도

노인의 지각된 생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기초로 강인(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척도를 이영자(1999)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평가한다. 척도 범위는 5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높으며 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6이었다.

#### 건강상태 평가

노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Kroenke, Spitzer와 Williams(2002)가 개발한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somatic symptom severity scale (PHQ-15) 중 배우자 사별한 노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문항을 일부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3점 척도로 평가한다. 척도 범위는 0점에서 2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0이었다.

####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 및 연구 보조자가 노인 전문 복지관 및 일반 복지관, 주택가와 아파트 내 노인정, 교회의 노인 대학, 공원 등을 방문하여 노인들과 일대일로 면담하면서 연구 목적과 참여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얻고 수행하였다.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110문항 가량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자 및 연구 보조자가 직접 설문 문항을 읽어주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들은 설명해 주면서 노인이 응답한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대상자 한 사람을 면담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 정도였다.

연구 문제를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여 각 변인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에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과 단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배우자 사별 노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

표 1. 배우자 사별 노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사례수(%)			사례수(%)
성별	남	24(23.1)	사별기간	2년 이하	31(29.8)
	여	80(76.9)		2-4년 이하	31(29.8)
연령	60-64	14(13.5)	교육정도	4-7년 이하	42(40.4)
	65-69	26(25.0)		무학	26(24.0)
	70-74	27(26.0)		초졸	37(35.6)
	75-79	37(35.6)		중졸	19(18.3)
				고졸	12(11.5)
		대졸이상	10(9.6)		
동거상태	독거	41(39.4)	종교	기독교	40(38.5)
	배우자 외 가족	57(54.8)		천주교	17(16.3)
	요양시설	3(2.9)		불교	18(17.3)
	가족 외 타인	2(1.9)		무교	26(25.0)
	기타	1(1.0)		기타	3(2.9)
평균수입	50만원 미만	42(40.4)	주된 평생 직업	미숙련 노동	21(20.2)
	50-100만원 미만	13(12.5)		반숙련 노동	19(18.3)
	100-200만원 미만	25(24.0)		노동에 종사하지 않음	41(39.4)
	200-300만원 미만	14(13.5)		숙련 노동	3(2.9)
	300-400만원 미만	7(6.7)		사무직, 공무원, 영업사원, 판매원	14(13.5)
	400-600만원 미만	2(1.9)		전문직, 기술직	6(5.8)
	600만원 이상	1(1.0)			

상 노인의 약 75%가 여성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60대가 38.5%, 70대가 61.6%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71.3(SD=5.30)세이다. 동거 상태의 경우, 배우자 이외의 가족(54.8%)과 함께 살거나, 독거(39.4%)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사별 기간은 2년 이하(29.8%), 2-4년 이하(29.8%), 4-7년 이하(40.4%)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교육정도는 약 60% 정도의 사별 노인이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38.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수입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5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된 평생 직업으로는 노동에 종사하지 않음(39.4%), 미숙련 노동(20.2%), 반숙련 노동(18.3%) 순이었다.

**배우자 사별 노인의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행동과 우울의 경향성**

배우자 사별 노인의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표 2,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 경향성은 표 3과 같다.

빈도 분석 결과 연구 대상의 약 60%가 우울성향이 있었다. 또한 총 15점 만점에 평균 7.30점으로 우울 증상의 유무와 심한 정도를 판단하는 절단점을 5점 기준으로 하여 5점 이상을 우울하다고 판단할 때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기백석, 1996).

추가하여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주요

**표 2. 배우자 사별 노인의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행동**

척도	영역	평균(표준편차)
사별스트레스	상실감	3.17(1.22)
	대인관계 문제	2.32( .93)
	경제적 문제	2.48(1.33)
	역할수행의 문제	2.36( .93)
사회적 지지		3.30(1.06)
대처행동	신앙에 의지	2.83(1.50)
	문제의 재정립	2.64( .84)
	감정표출	2.01( .87)
	수동적 회피	2.81( .88)

측정치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별 스트레스 중 상실감은 사별기간, 대인관계 문제는 연령, 경제적 문제는 평균수입과 교육정도, 역할 수행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대처행동 중 신앙에 의지는 성별과 종교, 문제의 재정립은 평균 수입과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은 동거상태와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행동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표 4에 제시하

**표 3.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점수 분포**

척도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우울	0-5점(정상)	42(40.4)	7.30(4.36)
	6-9점(중등도 우울)	27(26.0)	
	10점이상(우울증)	35(33.7)	

표 4. 변인들 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우울										
사별스트레스										
상실감	.40**									
대인관계문제	.22*	.49**								
경제적문제	.63**	.26**	.27**							
역할수행문제	.28**	.28**	.60**	.48**						
사회적지지	-.74**	-.34**	-.10	-.57**	-.11					
대처행동										
신앙에 의지	-.20*	.02	-.02	.02	.07	.24*				
문제의 재정립	-.27**	-.06	.26**	-.23*	.22*	.40**	-.03			
감정표출	-.29**	-.23*	-.05	-.22**	.02	.53**	.25**	.22*		
수동적 회피	.15	.11	.30**	.28**	.40**	-.08	.05	.10	-.01	

\*  $p < .05$ . \*\* $p < .01$ .

였다. 표 4를 보면 우울과 사별 스트레스인 상실감( $r = .40, p < .01$ ), 대인관계 문제( $r = .22, p < .05$ ), 경제적 문제( $r = .63, p < .01$ ), 역할 수행 문제( $r = .28, p < .01$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사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우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울은 사회적 지지( $r = -.74, p < .01$ ), 수동적 회피를 제외한 대처 행동 즉, 신앙에 의지( $r = -.20, p < .05$ ), 문제의 재정립( $r = -.27, p < .01$ ), 감정 표출( $r = -.29, p < .01$ )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고, 대처 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덜 우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는 상실감( $r = -.34, p < .01$ ), 경제적 문제( $r = -.57, p < .01$ )와는 부적상관을, 신앙에 의지( $r = .24, p < .05$ ), 문제의 재정립( $r = .40, p < .01$ ), 감정 표출( $r = .53, p < .01$ )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별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며 대처행동을 더욱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처행동과 사별 스트레스와의 상관은 사별 스트레스나 대처행동의 종류에 따라 부적상관과 정적상관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상실감은 감정표출( $r = -.23, p < .05$ )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대인관계 문제는 문제의 재정립( $r = .26, p < .01$ )과 수동적 회피( $r = .30, p < .01$ )와 정적상관 나타내었다. 경제적 문제는 문제의 재정립( $r = -.23, p < .05$ ), 감정표출( $r = -.22, p < .01$ )과는 부적상관을, 수동적 회피( $r = .28, p < .01$ )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역할수행의 문제는 문제의 재정립( $r = .22, p < .05$ ), 수동적 회피( $r = .40, p < .01$ )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별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두고 생활 스트레스,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사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인을 차례대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먼저 1단계 인구통계학적

표 5.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감에 대한 사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위계적 회귀분석

투입 단계	변인	b(β)	t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	df
1단계	교육정도	-.09 (-.29)	- 3.132**				
	건강상태	.05(.22)	2.366*	.153	.153	9.108***	2.101
2단계	교육정도	-.03(-.09)	-1.162				
	건강상태	.02(.09)	1.203				
	생활스트레스	.01(.17)	1.799				
	<u>사별스트레스</u>						
	상실감	.15(.23)	2.727**				
	대인관계문제	-.001(-.001)	-.006				
	경제적문제	.21(.35)	3.258**				
3단계	역할수행문제	-.05(-.06)	-.572				
	사회적 지지	-.02(-.21)	-2.582*	.527	.374	13.208***	6.95
	교육정도	-.03(-.09)	-1.074				
	건강상태	.03(.11)	1.377				
	생활스트레스	.01(.18)	1.867				
	<u>사별스트레스</u>						
	상실감	.18(.27)	2.059*				
	대인관계문제	-.03(-.04)	-.264				
	경제적문제	.30(.48)	3.581**				
	역할수행문제	-.07(-.07)	-.537				
	사회적 지지	-.003(-.03)	-.209				
<u>상호작용효과</u>							
상실감*지지	-.002(.07)	-.328					
대인관계*지지	-.002(-.04)	-.156					
경제*지지	-.02(-.28)	-2.033*					
역할수행*지지	.01(.16)	.586	.554	0.027	9.429***	4.91	

변인의 우울증에 대한 변량의 설명력은 15.3%다. 이 단계의 변인에는 교육정도, 건강상태가 포함되었다. 교육정도는 우울과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여주므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우울증의 증세는 덜하다. 건강상태와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더 우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 사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첨가하였을 때,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생활 스트레스,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의 변량을 52.7% 설명하고 있으며,  $R^2$ 은 37.4% 증가하여 생활 스트레스, 사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을 37.4% 설명하고 있다. 그 중 생활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별 스트레스 중 상실감( $b=.15$ )과 경제적 문제( $b=.21$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지지( $b=-.02$ )는 우울증과 부적 관계를 보여주므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덜 우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사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등식을 투입한 것으로 그 결과,  $R^2$ 은 2.7%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사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에 대한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에 대처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두고 생활 스트레스, 사별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별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의 상호작용 변인을

차례대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먼저, 1단계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우울증에 대한 변량의 설명력은 15.3%다. 이 단계의 변인에는 교육정도, 건강상태가 포함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펴본 이전 연구와 동일한 설명력을 보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더욱 우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 사별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이 첨가되었을 때,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생활 스트레스, 사별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우울의 변량을 54.8% 설명하고 있으며,  $R^2$ 은 39.5% 증가하여 생활 스트레스, 사별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이 우울을 39.5% 설명하고 있다. 사별 스트레스 중 상실감( $b=.15$ )과 경제적 문제( $b=.23$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처행동은 신앙에 의지( $b=-.10$ )와 문제의 재정립( $b=-.19$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는 사별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의 상호작용 효과 등식을 투입한 것으로, 그 결과  $R^2$ 은 9.9% 증가하였다. 대처행동 중 문제의 재정립이 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 문제의 재정립 대처행동이 배우자 사별 노인의 경제적 문제(사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 결과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이 모두 우울과 상관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므로, 인구 통계학적 변인,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처행동, 상호작용 변인(사별 스

표 6.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감에 대한 사별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투입단계	변인	b(β)	t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	df
1단계	교육정도	-.09(-.29)	-3.132**	.153	.153	9.108***	2.101
	건강상태	.05(.22)	2.366*				
2단계	교육정도	-.02(-.07)	-.800	.548	.395	10.139***	9.92
	건강상태	.12(.07)	.766				
	생활스트레스	.01(.17)	1.774				
	<u>사별스트레스</u>	.15(.23)	2.704**				
	상실감						
	대인관계문제	-.002(-.003)	-.025				
	경제적문제	.23(.37)	3.365**				
	역할수행문제	.01(.01)	.075				
	<u>대처방식</u>						
	신앙에 의지	-.10(-.18)	-2.248*				
	문제의 재정립	-.19(-.19)	-2.302*				
	감정 표출	-.02(-.02)	-.215				
	수동적 회피	-.01(-.01)	-.068				
	3단계	교육정도	-.04(-.12)				
건강상태		.01(.06)	.626				
생활스트레스		.01(.15)	1.413				
<u>사별 스트레스</u>		.13(.19)	.874				
상실감							
대인관계문제		-.35(-.40)	-1.188				
경제적문제		.163(.27)	.927				
역할수행문제		.001(.001)	.002				
<u>대처방식</u>							
신앙에 의지		-.27(-.50)	-2.929**				
문제의 재정립		-.38(-.39)	-2.112*				
감정 표출		.11(.12)	.597				
수동적 회피		-.02(-.02)	-.120				
<u>상호작용효과</u>							
상실감*신앙		-.01(-.05)	-.239				
대인관계*신앙		.12(.42)	1.748				
경제*신앙		.06(.30)	1.646				
역할수행*신앙		-.04(-.14)	-.503				
상실감*재정립		.06(.20)	.874				
대인관계*재정립		-.10(-.31)	-.890				
경제*재정립		.12(.31)	2.084*				
역할수행*재정립		.07(.21)	.571				
실감*감정표출		.30(.07)	.282				
대인*감정표출		.09(.01)	.325				
경제*감정표출	-.14(-.32)	-1.922					
역할*감정 표출	-.01(-.03)	-.115					
상실감*회피	-.04(-.17)	-.668					
대인관계* 회피	.13(.39)	1.085					
경제*회피	-.02(-.09)	-.314					
역할수행*회피	-.04(-.12)	-.242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감에 대한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처행동의 단계적 회귀분석

변인	R <sup>2</sup>	R <sup>2</sup> 변화량	F	df
사회적 지지	.539	.539	121.544***	1.102
사별 스트레스*사회적 지지	.619	.080	84.692***	1.101
건강 상태	.652	.033	65.341**	1.100

\*  $p < .05$ . \*\* $p < .01$ . \*\*\*  $p < .001$

트레스\*사회적 지지, 사별스트레스\*대처행동) 중에서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예측변인으로 위의 모든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 우울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R^2 = .539$ )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사별스트레스\*사회적 지지( $R^2 = .080$ ), 건강상태( $R^2 = .033$ )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우울을 65.2% ( $R^2 = .652$ ) 설명했다.

### 논 의

본 연구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배우자 사별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별 스트레스를 조사하고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대처방식이 조절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수행되었다. 사별 스트레스에는 ‘상실감’,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역할수행의 문제’ 등을 포함하였고, 대처행동 변인에는 문제중심 대처로, ‘문제의 재정립’, ‘감정표출’을, 정서중심 대처로, ‘신앙에 의지’, ‘수동적 회피’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를 조사해본 결과 노인들은 상실감(3.17), 경제적 문제(2.48), 역할수행의 문제(2.36), 대인관계 문제(2.32)의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스트레스 정도 평균 평점인 1.59 (홍민주, 2002), 1.85(백경숙 외, 2005)와 비교해 보면 사별이 노인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 사별로 인하여 상실감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상실감, 건강문제, 가족관계 문제 중에서 상실감을 가장 많이 인지한다는 윤현희(1996)의 연구나, 노인의 경우 외로움, 정서적 소외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전길양(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60세 이하의 배우자 사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역할 수행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배우자 상실감(최희정, 1997) 순으로, 부모 역할 상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상실감, 대인관계 문제, 역할수행의 문제(최혜경, 1966)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의 종류와 어려움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령에 따른 역할변화,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노인들의 대부분은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역할의 수행에서 오는 부담감이 어린 자녀를 둔 배우자 사별자 보다 덜하다. 노화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경제력을 상

실한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할 수행에서 오는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배우자 사별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거나 흔한 일이므로, 나만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재로 인하여 느끼는 소외감, 위축감은 젊은 사별자보다 덜하여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많이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처방식은 신앙에 의지, 수동적 회피, 문제의 재정립, 감정표출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사별 노인들이 문제중심 대처보다 정서중심 대처를 더욱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노인들이 정서중심 대처를 선호한다는 윤현희, 김명자(1994), 홍민주(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노인들이 수동적 회피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백경숙 외(2005), 윤현희(1994)의 연구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윤현희(1996)의 연구에서 여성 노인은 신앙에 의지 대처방식을, 남자 노인은 문제의 재정립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여성 노인이 대다수였던 점이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을 것이다.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는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지영(1999)의 분석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사별이라는 사건이 노인들에게 강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서중심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 사별 노인들의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 우울간의 상관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별 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미망인들이 적응과 부적의 관계가 있으며(최혜경, 1996),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여러 연구(백경숙 외, 2005; 장미희, 김윤희, 2005)결과와 일치한다. 즉, 사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은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수동적 회피를 제외한 대처방식은 우울과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먼저, 사회적 지지와 우울간의 상관의 결과를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보면, 사회적 지지의 인지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정도는 낮았으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은 독거노인이 사회적 지원을 덜 받은 독거노인보다 덜 우울하다고 보고하였다(김윤정, 2000). 조경옥(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이웃, 종교단체, 지역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특히, 전길양(2000)의 연구에서는 물질적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경제적인 자원이나 수단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물질적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결과들이 사회적 지지와 우울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그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처방식과 우울간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강인(1998)은 소극적 대처행동이 우세한 집단이 소극적 대처행동이 열세인 사별 여성 집단보다도 사별 이후에 우울의 수치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인 대처행동으로 볼 수 있는 신앙에 의지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수동적 회피는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한 대처행동과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별 스트레스의 변인인 경제적 문제와 상실감은 사회적 지지와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경제적인 자원의 부족이 사회적 지

지나 사회참여 같은 사회적 자원의 부족을 가져온다는 Pitcher와 Larson(1989)의 연구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상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 사회참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Norris & Murrell, 1990). 경제적으로 넉넉할 경우에는 가족 뿐 아니라 친족 간의 유대가 중요한 사회적 지원망으로 작용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자식과의 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친척 간, 이웃 간의 유대도 거의 소원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박기남(2002)의 연구도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상실감의 경우, 배우자 사별로 인해 노인들은 극도의 우울을 경험하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의 통로를 막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부적인 상관이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대인관계의 문제 및 역할수행 문제와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위의 두 어려움이 배우자 사별 노인들에게 주된 스트레스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지만, 상관관계의 계수가 미약하였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McFarlane et al. 1983; Mitchell & Moos, 1984)들을 살펴볼 때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다.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추후 연구가 요청된다.

대처방식 중 신앙에 의지, 문제의 재정립, 감정 표출은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 수동적 회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신앙의 의지, 문제의 재정립, 감정표출이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이지영(200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준다.

사별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간의 상관은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감정표출은 대부분의 사별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 수동적 회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문제의 재정립은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일관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문제의 재정립, 감정표출, 수동적 회피의 대처행동이 스트레스와 일관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이지영(2002)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사별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의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스트레스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행동이 달라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셋째,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우울감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 지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완충 효과 있음을 밝힌 김미령(2004)의 연구,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감소시킨다는 최희정(1997)의 연구, 경제문제로 인한 우울에 물질적 지지가 조절 효과가 있다는 남향자(2004)의 연구와 일치된다. 이영자(1999)도 그의 연구에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질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대처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우울감에는 문제의 재정립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 우울감이 더욱 증가되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자녀의 원조를 받기 위해 감정표출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자녀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 경우 그냥 참고 견디거나 술, 담배를 해서 마음을 달래는 정도의 수동적 회피를 사용한다는 이지영(2002)의 연구 결과와도 차이를 보였다. 이소정(2002)의 연구에 의하면 문제중심 대처와 우울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경제문제와 문제의 재정립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향자(2004)의 연구에서도 문제중심 대처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Patterson(2003)의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대처를 사용하면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의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문제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또한 Patterson(2003)은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수준이 높아지면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처행동도 변화하며, 현실적으로 노인은 배우자 상실, 경제력 상실, 역할 지위 상실과 같은 많은 상실감 때문에, 직접적이고 문제중심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극복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는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하여 그것을 참고, 최소화시키고, 수용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배우자 상실에 의한 스트레스는 노인의 힘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스트레스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상실

에 의한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가 조절효과를 통해 우울감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에 정서중심 대처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재정립과 같은 문제중심 대처의 비효율성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자원들은 배우자 사별 노인의 적응과정에서 획일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별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유형과, 배우자 사망과 관련하여 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최혜경(1996)의 연구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처행동이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을 중재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사별 노인의 사별 스트레스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대처방식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사별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는 각기 상이한 중재적 역할을 하는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 중에서도 사별, 또한 그 연령대가 노인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중재 변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울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가장 많이 우울을 설명하였으며, 사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와 건강 상태가 그 다음 수준이었다.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행동, 각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50%이상 설명하는 본 연구 결과는 배우자 사

별 노인의 우울에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영향을 주는 효과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주효과 모델(main effect model)이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안정감이나 환경에 대한 통제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일반적인 적응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직접효과라 한다. 다른 하나는 완충효과 모델(buffering effect model)이다. 스트레스가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적응상의 문제에 별 차이가 없으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조절작용을 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Cohen & Wills, 1985; Wheaton, 1985). 이것을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라 한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 변인의 설명력이 높게 나온 것은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의 설명력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앞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증명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완충효과 모델에 부합해, 배우자 사별 노인이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낄 때,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우울증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정서적, 도구적인 지지는 노인들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사별 노인에게 대처행동 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더욱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사별자의 건강상태도 우울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었는데, 그들의 건강상태가 질병이 있거나 위험도

가 높은 경우에는 사별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키며, 사별 후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안명자(1991), 전길양(200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에 그들의 건강상태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서술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배우자 사별 노인들은 첫째, 상실감,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대처행동으로는 신앙에 의지, 수동적 회피의 정서중심 대처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우울감,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둘째, 사별 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상관을, 사회적 지지, 대처행동과 우울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 보였다. 사별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 간의 상관은 사별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의 종류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입증되었다. 넷째, 경제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 재정립 등의 문제중심 대처는 오히려 우울을 상승시켜 사별자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가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활용하여,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에 도움이 되는 중재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별 노인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상실감이다. 노인들은 노년기의 일반적인 외로움에 사별로 인한 어려움이 더해지는 이중고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노인 사별자들은 건강이나 경제적 조건이 나쁘거나, 연령이 많고 경제력을 타인에게 의존할 때와 같이 자원이 제한될 경우에, 심리적 부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 사회의 도래에 따라 배우자 사별 노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될 것임을 예상해 볼 때, 노년기 사별을 사회화의 규범적 과정으로만 여기고 일반적인 사건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시급하다. 배우자 사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 서비스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그들의 심리적인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 노인교육 과정 개발 시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배우자, 친구나 친지의 상실에 대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사별 스트레스 감소시키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적인 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다.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들끼리 유대관계를 통해 적응하는데 도움을 얻기도 하므로(Morgan, 1997),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들은 환경이 비슷한 처지의 자조집단 형성을 통하여, 노년기에 주로 도움만 받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는 자긍심의 유지, 자아 정체성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Stylianios & Vachon, 1993; 김미령, 2004). 따라서 공적 지지 체계에서 배우자 사별 노인을 위한 모임 등 노인들이 자조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중재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국가로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 채, 자녀들에 대한 투자를 노후대책으로 삼았던 노인세대들은 현실적으로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의 한국노인들이 겪을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미령, 2004). 삶의 형태의 변화로 배우자 사별 노인들이 자녀들과 동거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녀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것 등을 통하여, 노년기에 혼자되어 외로움과 소외감을 적절하게 느끼는 노인들을 배려하는 노인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사회적 지지가 효과적인 완충제임을 감안해,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들을 마련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회적 지지, 특히 경제적 지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은 그 지지의 목적이 단순히 생계를 보조해 주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은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의 기저에는 ‘혼자인 나’라는 정체감을 다시 확립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는 건강한 동기가 작동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여, 이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인들의 개인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변인으로 대처행동을 다루었는데,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는 배우자 사별 노인들의 개인 변인으로 대처행동 외에 다른 요인이 그들이 심리적 적응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변인이나 성격 특성과 같은 자원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인 특성으로 의존성, 자아 통제감, 자존감 등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는데, 더욱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하여 배우자 사별 노인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에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노인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 뿐 아니라, 신체의 건강을 위한 정책 등도 동시에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의료혜택과 보건 복지를 보장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지지, 기능적 지지로 크게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측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로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가장 많이 설명하며, 스트레스의 완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둘째, 배우자의 사별 이유나, 사별 예상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사별한 이유와 예상 여부는 사별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사망한 경우와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에 사별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종류와 강도가 다를 것이다. 이러한 변인이 연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제하지 못

하였다.

셋째,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이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남녀 비율이 맞지 않는 것도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남녀 노인 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사별스트레스의 역할 수행의 문제, 대처행동의 신앙에 의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 연구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성별에 따라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 경향성이 다르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남녀 노인 간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으나 표본의 크기가 작고 표집이 제한적인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사별자들을 추적한 종단적 연구가 아닌 횡단적 연구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가 함께 요청된다.

다섯째,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 내적 변인으로 대처 행동을, 환경적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고려했는데, 다른 추가적인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조절 변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든 자료가 자기보고 형식에 의해 얻어졌다는 것이 제한점이 된다. 자기보고 측정치의 경우 연구 대상자들이 내적으로 억압이나 부인 등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거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보고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노인들의 특성상 면접자가 문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항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배우자 사별 노인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크게 지각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절변인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데 있다. 이 결과는 노인들이 사별로 인하여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을 돕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 안녕감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인, 최혜경 (1998). 여성의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개인 내적요인들의 중재적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36(4), 95-107.
- 강희숙, 김근조 (2000). 일부지역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과의 관련성. *대한보건협회*, 26(4), 451-459.
- 기백석 (1999). 노인 우울증. *노인병*, 3(3), 1-10.
- 김미령 (2002). 스트레스이론의 비교 및 노인의 역할변화 연구에의 적용. *한국노년학회지*, 22(2) 41-61.
- 김미령 (2004). 미국 여성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배우자유무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노년학회지*, 24(4), 147-164.
- 김윤정, 최혜경 (2000). 치매노인 부양자들의 대처방식과 대처효과에 대한 지각. *한국노년학*, 20(2), 183-193.
- 남향자 (2004). 노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희석, 손정락, 오상우 (1993).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역기능적 태도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효과. 93 학술논문집. *한국심리학회*, 4, 25-438.
- 백경숙, 권용신 (2005). 노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한국노인복지학회*, 28(2), 379~402.
- 보건복지부 (2005). 노령화 지수 추이. 보건복지부 출판부.
- 안명자 (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가현 (1991). 노년기의 고독감 IV: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 *한국노년학*, 14(1), 17-32.
- 윤현희 (1994). 남녀 노인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심리적 적응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 (1997). 성인 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
- 이소정 (2002). 성격, 스트레스 및 대처 그리고 노년기 우울간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2002). 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 (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평숙, 이영미, 임지영, 황라일, 박은영 (2004).

- 노인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우울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4(3), 477-484.
- 전길양, 김종옥 (2000). 배우자 사별 노인의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155~170.
- 최희정 (1997).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 (1990). 노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변인과 대처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 최혜경 (1996). 도시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노년학*, 16(2), 39-52.
- 홍민주 (2002). 노인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 생 활만족도의 관계.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bey, A., Abramis, D. J., & Caplan, R. D. (1985).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 on emotional well-being. *Basic & Applied Social Psychology*, 6, 111-129.
- Aldwin, C. M. (1991). Does age affect the stress and coping process?: Implications of age differences in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Gerontology*, 46(4), 174-180.
- Arbuckle, N. W., & Vries, B. (1995). The long-term effects of later life spousal and parental bereavement on personal functioning. *The Gerontologist*, 35(5), 637-647.
- Atchley, R. C. (1994). Dying, death, bereavement and widowhood. *Social Forces and Aging*.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Atchley, R. C. (2000). *Social forces and aging*.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Bankoff, E. A. (1983).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widow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1, 827-839.
- Bass, D. M., K. Bowman., & Noelker, L. S. (1991). The influence of caregiving and bereavement support on adjusting to an older relative's death. *The Gerontologist*, 31(1), 32-42.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Caserta, M. S., & Lund, D. A. (1991). Intrapersonal resources and the effectiveness of self-help groups for bereaved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33(5), 619-629.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40, 539-550.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and health*. Orlando. FL: Academic Press.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ekker, P., & Uslaner, E. (2001).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 Digulio, R. C. (1989). *Beyond widowhood from bereavement to emerge and hope*. New York: The Free Press.

- Dimond, M., D. A. Lund., & Caserta, M. S. (1987).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first two years of bereavement in an elderly sample. *The Gerontologist*, 27(5), 599-604.
- Edelstein, B. K., Kinberly, D., Drozdick, L. W., & Mckee, D. R. (1999). Assessment of depression and bereavement in older adults. In paper A. Lichtenberg(Ed.), *Handbook of assessment in clinical gerontology* (pp.11-58) New York: John Wiley & Sons.
- Folkman, S., Lazarus, R. S., Pimley, S., & Novacek, J. (1987). Age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process. *Psychology and Aging*, 2, 171- 184.
- Gottfires, C. G. (2001). Late life depression. *Europe Archives Psychiatry Clinical Neuroscience*, 251(2), 11-61.
- Helgeson, V. S. (2003).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Research*, 12(1), 25-31.
- Hill, C. D., Thompson, L. W., & Gallagher, D. (1988). The role of anticipatory bereavement in older women's adjustment to widowhood. *The Gerontologist*, 28(6), 792-796.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 Krause, N. (1991). Stressful even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46(2), 84-92.
- Krause, N. & Borawski-Clark, E. (1995). Social clas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35(4), 498-508.
- Krause, N. & Van Tran, T. (1989). Stress and religious involvement among older blacks. *Journal of Gerontology*, 44(1), 4-1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Lehman, D., Ellard, J., & Wortman, C. (1986). Social support for the bereaved: Recipients' and providers' perspectives on what is helpfu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cal*, 54, 438-446.
- Lopata, H.(Ed.). (1987). *Widows: Vol.1. Asia, and the Pacific*.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Lopata, H. Z. (1993). The support systems of American Urban widows. In Stroebe, M., Stroebe, W., & Hansson, R. O.(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381-39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wenstein, A., Landau, R., & Rosen, A. (1994). Adjustment to loss of spouse as a multivariate construct. *Omega*, 28(3), 229-245.
- Lund, D. A., Casterta, M. S., & Dimond, M. F. (1986). Gender difference through two years of bereavement among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6(5), 314-320.
- Mattin, J. A., Wathington, E., & Klssler, R. C. (1990). Situational determinants of coping and coping effective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103-122.
- McLeod, J. D. (1996) *Life Events*. New York: Academic Press.
- Mendes de Leon, C. F., Kasl, S. V., & Jacobs, S. (1994); A prospective study of widowhood and changes in symptoms of depression in a community sample of the elderly. *Psychology Medicine*, 24, 613-624.

- Miller, M., & Reynolds. (2003). *Living longer depression fre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irowsky, J., & Ross, C. E. (1992). Ag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187-205.
- Mitchell, R. E., & Moos, R. H. (1984). Deficiencies in social support among depressed patients: antecedents or consequence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5(4), 438-452.
- Morgan, D. L. (1989). Adjusting to widowhood: Do social networks really make it easier? *The Gerontologist*, 29(1), 101-107.
- Musil, C. D., Haug, M. R., & Warner, C. D. (1998). Stress,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dults at three time points over 18 months. *Issue in Mental Health Nursing*, 19, 207-224.
- Norris, F. H., & Murrell, S. A. (1987). Older adult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before and after bereavement. *Journal of Gerontology*, 42(6), 606-612.
- Norris, F. H., & Murrell, S. A. (1987). Transitory Impact of life-event stress on psychological symptoms in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197-211.
- Norris, F., & Murrell, S. (1990).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stress as modifiers of adjustment to bereavement by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5(3), 429-436.
- O' Bryant, S. L., & Morgan, L. A. (1989). Financial experience and well-being among mature widowed women. *The Gerontologist*, 29(2), 245-251.
- Parkes, C. M. (1993). Bereavement as a psychosocial transition: Processes of adaptation to change. *Journal of Social Issues*, 44, 53-65.
- Patterson, G. T. (2003). Examining the effects of coping and social support on work and life stress among police offic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 215-226.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2), 237.
- Pitcher, B. L., & Larson, D. C. (1989). Elderly widowhood. In S. J. Bahr & E. T. Peterson (Eds.), *Aging and the family* (p.59-81). Lexington, Massachusetts: D.C Health and Co.
- Riddick, C. C. (1985). Life satisfaction determinants of older male and females. *Leisure Science*, 7, 47-63.
- Rosow, I. (1995). Status and role change through the life cycle. in R. H. Binstock & E.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p.62-93). New York: Ban Nostrand Reinhold Co.
- Ross, C. D. (1995). Reconceptualizing marital status as a continuum of social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1), 129-140.
- Sheikh, J. A., & Yesavage, J. A. (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Clinical Gerontology: A Guide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Y: The Haworth Press.
- Siegel, J. M., & Kuykendall, D. H. (1990). Loss, widowhood, and psychological distress

-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5), 519-524.
- Silverstein, M., & Bengtson, V. L. (1994). Does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influe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The contingencies of declining health and widowhood.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8(7), 943-957.
- Stephenson, G. M. (1989). Applied social Psychology. In Hewstone, M. Strobe & W, Codol, J., & Stephenson, G. M (eds).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Blackwell Inc.
- Strobe, M. S., Strobe, W. S., & Hansson, R. (1988). Bereavement research. An Historical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4(3), 1-18.
- Strobe, M. S., Strobe, W. S., & Abakoumkin, G. (1999). Does Differential Social Support Cause Sex Differences in Bereavement Outcome?.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9, 1-12.
- Stylianou, S., & Vachon, M. (1993).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bereavement. In M. Stroebe, W. Stroebe, & R. Hansson (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its, P. A. (1985).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possibilities. *Journal of Gerontology*, 40(3).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5), 53-79.
- Umberson, D., Wortman, C. B., & Kessler, R. C. (1992). Widowhood and spousal bereavement over a 30-month interval. *Psychology and Aging*, 6(3), 434-441.
- Umberson, D. (1987). Family status and health behavio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306-319.
- Wheaton, B. (1985). Models of the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coping resour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 352-364.
- Wilcox, S., Evenson, K. R., Aragaki, A., Wassertheil-Smoller, S., Mouton, C. P., & Loring, B. L. (2003). The effects of widowhood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health behaviors, and health outcomes. *Health Psychology*, 22(5), 513-522.
- Ziok, S. (1991). Depression through the first year after the death of a spou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13), 46-52.
- Ziok, S. (1994). Diagnostic and treatment considerations in depression associated with late life bereavement. In L. S. Schneider, C. F. Reynolds, B. D. Lebowitz, & A. J. Frieshoff (Eds.). *Diagnosis and treatment of depression in late lif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원고접수일 : 2006. 8. 12.

게재결정일 : 2007. 2. 1.

##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on Widowed Elderly

Seung-Youn Kim      Seon-Gyu Ko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on the depression of widowed elderly.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104 older adults, whose age range was from 60 to 80( $M=71.31$ ,  $SD= 5.30$ ). For this purpose, the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Bereavement Stress Scale(emotional loneliness, relational strains, financial strains, role-related strains), Social Support scale, Stress-Coping Scale(dependence on religion, solving the problem, emotional effusion, passive evasion), Geriatric Depression Scale and Livelihood Stress Scale.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bereavement stress and depression( $r = .40$ ,  $p < .01$ ), betwee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r = -.74$ ,  $p < .01$ ).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financial strains were moderated by the social support. But problem-focused coping behavior aggravated depression and was not of help to the widowed.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and health condition explained 65.2% of total variance of the bereaved elders' depression.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social support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psychological maladaptation of the bereaved elderly.

*Key words* : bereavement stress, social support, coping behavior, depression